

제 2장 에로스 (아모르, 큐피도, 큐피드)

들어가면서

1장에서 아프로디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에로스가 출현했다. 소위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를 말한다. '에로스'에 대한 칭호는 문맥에 따라 '아모르', '큐피도', '큐피드'로 사용코자 한다. 에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처음 등장하는데 고대 로마인들은 그를 큐피도(*Cupido*)라 했고, 라틴 시(詩)에서는 특별히 아모르라 표현했다. 영어권에선 큐피드가 익숙하다.

서양 미술에서 아프로디테만큼이나 많이 묘사된 에로스는 흔히 알듯이 귀엽고 날개달린 어린아이고 활을 지녔다.¹ 라틴어 큐피도는 '욕망'과 '탐욕'을, 그의 어머니 베누스는 '매력'과 '성적 사랑'이란 추상적 개념을 뜻하는데 그것을 의인화한 것이 미술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이다.

에로스 신화는 중세를 거치면서 철학적, 도덕적 문제로 그의 이미지가 한 때 바뀌기도 했다. 예로서 '눈먼 아모르'가 나오고, 그에 따른 우의적 문제가 생겨난다. 한편, 에로스 철학은 서양미술의 저면에 깔려 여전히 주된 테마로 남아있다. 따라서 에로스의 핵심사상이 담긴 신화적 기원설과 최초의 철학적 논설들을 짚어보고 거기서 파생된 주제의 그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에로스 탄생 설

① 에로스(사랑의 신)는 카오스의 알 속에서 제일 먼저 태어나, 하늘 우라노스와 땅 가이아를 교합시켜 12명의 타이탄을 낳았다는 설

② 제일 먼저 태어난 가이아가 남성의 도움 없이 에로스, 우라노스, 우레아(산맥의 신), 폰토스(바다의 신)를 낳아, 에로스의 주선으로 가이아는 자기 아들인 우라노스와 결합 했

다는 설

③ 헤시오도스 설 ; 아프로디테가 태어날 때 에로스와 히메로스(욕망)도 태어났음

고대 그리스의 초창기 도기화들 중에는 히메로스와 에로스라고 이름 적힌 두 어린아이들이 아프로디테와 함께 출현 (도판<헤라클레스와 헤베의 결혼>)

에로스는 꼭 어린아이만은 아니며, 날개 달린 청년으로도 묘사 (도판<에로스의 추격을 받는 아탈란타>)

④ 플라톤의 『심포지엄』 설 ; 아프로디테의 탄생 축하 잔치 중 페니아(가난과 무지)가 포로스(풍요와 지략)에게 접근하여 에로스를 낳음

에로스의 성향 - 풍요와 빈곤, 지략과 무지의 중간

어머니의 성향(거칠고, 맨발이고, 초라하고, 집도 없고, 이불도 없이 길가에서 잠)과 아버지의 성향(용감하고, 능숙한 사냥꾼, 계락을 짜내고, 아름다운 것과 지혜로운 것을 사랑하는 학자)을 동시에 가지며, 지혜와 지성미에 대한 사랑의 욕구

에로스는 신이 아니라 신령?

- 플라톤

"그것(신령)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신들에게, 또 신들에게서 나온 것을 사람에게 통역하고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부터는 기원(祈願)과 제물을, 신으로부터는 명령과 제물에 대한 보답을 전달하고, 또 그 둘의 비어있는 사이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 신이 사람과 직접 사귀는 일은 없고, 오히려 신들과 사람 사이의 교섭과 대화는, 깨어 있건 잠들고 있건, 다 이 신령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 이런 신령들은 수도 많으려니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전설 속의 에로스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전령 (도판<상자에서 나오는 에로스에게 젖을 먹이는 아프로디테>)

-제우스, 아레스(마르스), 헤르메스(메르쿠리우스)의 자식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낳은 네 명의 자식(하모니(조화*Harmonia*), 데이모스(걱정

Deimus), 포보스(두려움Phobus), 에로스(사랑) 중 한 명

-베누스 혹은 네메시스의 아들이라 전해지는 안테로스(Antérôs)의 형

2.2. 성적 사랑에서 출발한 에로스

에로스의 지성적 사랑이란?

'정신적 사랑'으로 플라토닉 러브의 근거이며, 『심포지엄』의 육체적 사랑에서의 시작 설

"즉 땅 위의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저 가장 높은 아름다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욱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마치 층계를 올라가듯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두 육체로, 두 육체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아름다운 직업 활동으로, 다음에는 직업 활동으로부터 아름다운 여러 가지 학문으로, 여러 가지 학문으로부터 저 아름다움 그 자체의 학문인 바로 그 학문에 이르러, 드디어 아름다움 그 자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중략) 사람은 아름다움 자체를 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승화

육체의 아름다움 → 직업활동(행동의 아름다움) → 학문의 아름다움 → 궁극적 '미(지성)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

성적(性的) 사랑과 쾌감에서 출발하여 윤리의 차원, 점차 시나 예술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지성계에 도달

형이하학적 영역에서 형이상학의 세계 - '미적 승화'

아름다운 육체를 먼저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육체에서는 '아름다운 담론'이 분만되어야 한다는 것

에로스의 욕망

- '분만 욕망'(성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정신적인 생산과 미덕으로 변화

- 육체의 임신은 생물적 불사(不死)의 행복이고, 영혼의 임신은 분별력(나라와 집안을 다스리는 덕으로써 절제와 정의를 상징)의 출산을 뜻 함

프로이트의 창조적 승화 설

- 인간의 성적충동이 모든 창조적, 정신적 작업의 유일한 원천의 작용된다는 학설
- 성적충동으로 문명(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사회 '항문 성애 적 본능', 전쟁 '죽음의 충동')을 낳았으며, '문명의 거북스러움'은 리비도(본능적인 성욕)의 억압 때문이라고 주장
- 성적충동이 승화작용을 거쳐 '예술적 창조 행위'를 낳는 다는 것

지성, 도덕, 관능의 미적 위계 - 진실의 아름다움을 '진(眞)', 도덕, 즉 행동의 아름다움을 '선(善)', 관능의 아름다움은 '미(美)'

진실미를 강조했던 플라톤의 철학 - 순수 미와 추상미술을 예찬하는 이론적 토대

2.3. 영혼을 사랑한 에로스

프시케와 에로스간의 사랑이야기 『변신Metamorphoses(일명 '황금 당나귀')』 내용

프시케 공주의 미모에 질투 한 베누스는 프시케가 가장 못생긴 남자를 연모케 하는 벌을 내렸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 내려온 아모르는 그만 프시케의 미모에 넋 놓다 자신의 화살에 상처를 입는다. 한편 누군가 결혼해줄 남자를 기다리던 프시케는 (보이지 않는)아모르에게 첫 입맞춤을 받고 황홀하게 이끌려 그의 영원한 성에 이른다.

카노바의 조각 (도판<아모르와 프시케>), 제라르의 그림 (도판<프시케와 아모르>)

프시케(그, *Psukhē*)는 그리스어로 '영혼'이란 뜻이며 '나비'라고도 불림

그림의 프시케와 나비는 인간의 영혼을 의인화한 것 - 신플라톤주의 영향인 에로스 주제 즉, '인간의 영혼과 신적 사랑의 연합'이란 알레고리 것 들

나비와 아모르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저명한 시인 테오크리토스(Theokritos)의 전원시에 나옴

로코코 시기 조각가 쇼테(1763~1810)의 (도판<나비를 잡는 아모르>)

기원전 2세기경 조각된 (도판<낙타 위의 프시케>) - 지복의 세상으로 떠나는 영혼의 여행을 상징

(도판<아모르와 프시케>) - 나비의 프시케를 포옹하는 테마로 헬레니즘 시절에 널리 알려졌으며, 로마시대에 모각한 작품

계명을 어긴 프시케는 베누스의 노예가 되어 어려운 과업들을 수행 - 그 고통과 고뇌를 '사이코시스(psychosis)'라 함

프시케 - '이상(理想)'을 상징, 사랑으로 깨끗해진 타락영혼의 알레고리가 깃들

2.4. 천사 같은 아모르, 악마 같은 쿠피도

아모르

- 초기 그리스도교(1~8세기경) 시절
- 고대철학의 방식으로 교회의 교리를 설명코자 한 교부철학(1~8세기경)은 플라톤의 에로스를 그리스도교의 '아가페' 사랑이라 함

- 아카페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뜻하며,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 자애)적 사랑

카리타스의 본질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요한 일서 4:16)을 근거로 의미가 확장되어 탈(脫) 에고이즘 사랑(박애정신)이며, '신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 '선한 욕구'를 뜻 함

쿠피도

- 카리타스적 사랑과 충돌되는 반대개념으로 쿠피디타스(*cupiditas*, 욕망)적 사랑

쿠피디타스의 본질 - '세속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 '악한 욕구'를 뜻 함

▶ 이후 스콜라 철학(8~14세기경)이 한창인 12세기 무렵, 시문학 분야에서는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의 대립 각이 완화

▶ 트루바두르 시인들 - '쿠피도(욕망)'란 말 대신 '아모르'란 이름으로 사랑의 질을 승화

(당시의 신학은 감성적 신비주의와 마리아의 인간적 사랑을 신성한 사랑으로 추구)

▶ 돌체 스틸 누오보 시인들 - 아모르를 '사랑의 여인'이나 '천사'로까지 묘사

(아모르를 물질적이고 시각적인 것이 아닌 숭고한 정신적 영역의 존재로 묘사)

▶ 다른 문헌들에선 아모르가 귀족적이고 잘 생긴 청년으로서 수행원을 동반하거나 화려한 의상에 관을 쓰기도 한다. 게다가 그의 아름다움은 곧잘 천사와 비교되었는데, 단테는 아모르를 그리스도의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인 "흰 옷을 입은 한 청년"(마가복음 16:5) 같다고 묘사(도판)

▶ 이상주의자 - 아모르를 일종의 형이상학적 찬양의 대상, 그리스도교의 열광적 사랑
